

農村地域의 住民集團과 地域意識*

— 洪城郡을 事例로 —

金 相 彬**

《 차례 》

1. 序 論	4. 地域的 所屬感과 定住意思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1) 地域的 所屬感과 結束
2) 研究方法과 資料	2) 定住意思
3) 集團의 類型	5. 參與意識과 行動
4) 研究地域	1) 參與에 대한 意識
2. 文獻研究	2) 地域(住民) 運動
1) 地域意識에 대한 研究動向	6. 地域發展에 대한 意識
2) 地域意識의 諸關係	1) 役割에 대한 意識
3. 生活環境에 대한 評價	2) 葛藤에 대한 認識
1) 絶對的 評價	3) 洪城郡의 發展展望과 發展方向
2) 相對的 評價	7. 要約 및 結論

主要語: 地域意識, 領域性, 住民集團, 地域的 所屬感, 定住意思.

1. 序 論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장소에 몸담아 살아간다. 그리고 이웃과 어울려 고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곳에 정붙이고 의미를 채워간다. 그것은 그들만의 領域이다. 이 領域(territory)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다 친근하고 익숙하여 자기들만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크고 작은 空間的 範圍가 있기 마련이다.¹⁾

이 空間的 範圍 중에서도 특히 「우리고장」, 「우리동네」라고 일컬을 때의 '우리'는 오랜 세

월을 함께 지내는 동안 이룩한 문화적 전통이 있고 거기에 터잡은 의식의 공감대가 있다는 말이다. 이 의식의 공감대는 아무리 산업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법이다.²⁾ 지리학의 목표 중의 하나가 地域性을 구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 지역성을 구명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갖는 地域意識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많은 지역문제들의 상당수가 왜곡된 지역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때 지역의식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 地域意識이란 “인간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자리잡은 領域性(Territorialität)과 일상생활의 빈번한 접촉 및 유대의 권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임. 指導教授이신 柳佑益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大 大學院 碩士課程 卒業

1) 류우익, 1987, “지역감정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학신문, 1987. 11. 3일자, 6면.

2) Ibid.

역위에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連帶意識”³⁾ 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는 이제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약한 실정이었고, 사회학이나 정치학, 심리학 분야에서 오히려 이러한 연구가 활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地域意識의 제 측면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地域主義의 傾向은 부정적인 地域利己主義, 地域感情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주의적 경향에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면도 많다. 본고에서는 지역주의적 경향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민이 갖는 의식의 실체를 다루고자 한다.

둘째, 최근에 시작된 지방자치의 실시와 개발방식의 전환에 따라 주민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주민참여의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이념상, 그리고 지역발전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사례지역 주민이 가지는 지역과 지역발전의 이념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地域意識이 보다 강력해지고 활성화되면, 그것의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地域社會組織이 생겨나고 이 조직을 매개로 하여 활발한 地域住民運動이 일어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주민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로 이어지는가, 또한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研究方法와 資料

본논문의 연구는 크게 文獻研究와 設問調査

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설문 조사를 주로 실시했고,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설문은 주로 무작위추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민에 대한 표본추출은 난수발생기(random generator)를 이용하여 난수를 선정한 다음, 이 난수를 전화번호부에 적용시켜 주민을 표본추출하였다. 1차설문(1991년 8월말 실시)에서 1532부(홍성군 인구 111,933명의 1.4%에 해당)를 배포하였고, 2차 설문에서는 500부를 우송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약 22%에 해당하는 345매이나 실제 분석에 사용한 것은 336매(홍성군 전체 인구의 0.3%에 해당)이다.

3) 集團의 類型

전통적으로 한국의 농촌사회는 마을 또는 部落(自然部落)이라고 하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마을 그 자체가 독립적인 단위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집단이었다. 이러한 마을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단위로서 가구들은 가구 상호간에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마을전체가 同族部落의 성격이 강했다.⁴⁾ 그러나 공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농촌사회의 전통적 구조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농촌은 산업사회적 논리와 가치체계의 수용을 강요받게 되었고,⁵⁾ 비농업인구도 늘어나 주민구성의 이질화가 증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지역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주민들을 세분해서 본다면 주민집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의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地域意識의 보다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生涯段階(즉, 연령)와 經濟活動(즉, 직업)의 두 지표로서 집단을

3) 柳佑益, 1986, “地理學의 理論과 實際—地域地理學의 르네상스를 위한 小考,” 現代社會, 第6卷 4號, p. 258.

4) 최양부, 이정환, 1987, 産業社會의 農村發展戰略—새로운 農村地域 綜合開發方式의 選擇,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p. 106-107.

5) *Ibid.*, pp. 107-116.

구분하였다. 연령은 5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와같이 구분한데는 50세 정도가 되면 쉽게 타지역으로 이주하기 보다는 계속 그 지역에 정주하려는 의사가 강하고 40代 이전의 연령층과 같은 왕성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기본적으로 청장년층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지역이 전형적 농촌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주민집단은 크게 농업종사자와 비농업종사자로 구분하였다.

1985년 10월 1일 현재, 洪城郡의 인구는 120,219명이었고, 20세이상 인구 70,252명 중 20-49세 인구는 45,528명(64.3%), 50세 이상은 25,224명(35.7%)이며, 직업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47,056명 중 농업종사자가 33,687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며, 비농업종사자는 13,369명으로 28.4%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모집단과 표 1의 표본을 비교하여 볼 때 연령분포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이곳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왔으며, 감소인구의 대부분이 50代 이하이기 때문에 1991년에 이루어진 標本抽出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職業構造에서의 차이는 설문시에 이 지역의 유력 인사를 많이 포함시킨데에서 기인한다.

4) 研究地域

본 논문의 연구지역인 洪城郡은 忠南 西部海岸地域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淺水灣을 끼고서 禮山, 保寧, 淸陽, 瑞山의 4개군과 접하고 있다. 총면적은 412.72km², 인구는 111,933명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총가구수는 27,175이고 행정구역으로는 2개 읍, 9개 면, 140개 법정리, 329개의 행정리가 있다.⁶⁾

6) 주로 다음에서 인용하였다.

洪城郡 統計年譜, 1990.

洪城郡誌 編纂委員會, 1990, 洪城郡誌 增補版.

유희영, 1990, "홍성지역의 시민운동,"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문제 연구소 편, 도시·주민·지역운동, pp. 184-185.

7) 1990년에는 道廳留置運動을 위해 洪城郡 禮山郡開發委員會가 공동으로 「忠南道廳의 立地選定에 대한 우리의 主張」이라는 자체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표 1. 設問 應答者의 集團區分

단위: 명, %

	農 業	非農業	계
20-49세	집단 1 78(54.9)* (40.4)**	집단 2 64(45.1) (46.4)	142
50세 이상	집단 3 115(60.8) (59.6)	집단 4 74(39.2) (53.6)	189
계	193 (58.3)*	138 (41.7)	331

*: row percent, **: column percent.

홍성군을 연구지역으로 한 것은 우선, 이곳이 고려시대에는 목(牧)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洪州府가 설치되어 인근 22개 군을 관할하였던 역사가 매우 오래된 곳이고, 최근 인근 서산, 당진 등지에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外部人口流入에 의한 住民構成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해 이곳은 住民構成이 오랫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주민의 地域意識이 비교적 강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서해안 개발계획에 의하면 이곳은 충남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生活圈의 中心地로써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곳보다 큰 지역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충남도청을 유치하자는 운동⁷⁾이다. 이 운동을 계기로 군민의 지역의식, 애항심이 더욱 고양되고 이에 의해 住民參與의 地域開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2. 文獻研究

1) 地域意識에 대한 研究動向

지역의식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간에 표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으로서 이들 특정 지역의 고유문화양상을 나타내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이며, 특정지역의 공동체 성원 모두가 간직한 공통의 신념이나 가치관, 기호등을 가리킨다.”⁸⁾ 또한 지역의식은 “자신이 속한 지역 혹은 지역집단이 가지는 독특성에 대한 지각(perception)을 언급하는 인간의 사회적 의식의 일부이다.”⁹⁾

문석남은 지역의식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맥락에서 여러가지 형성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연적, 지리적 환경과 지배층의 이념 등에서 지역의식 특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역의식의 형성요인을 설명하고 있다.¹⁰⁾

崔協은 지역의식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역성에 근거한 집단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대의 유물로 사라져갈 요소가 아니며, 인간사회의 존속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견될 현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역의식의 역할을 사회발전의 논리와 관련시켜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구분하였다.¹¹⁾

임경수는 우리나라 지역주의의 성격을 밝히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지역의식 내지 지역감정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고 보고 있다.¹²⁾ 즉 지역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틀을 가지기 보다는 감성적 차원의 지역의식으로 존속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역의식을 긍정적 지역의식과 부정적 지역의식으로 구분하고, 지역감정의 형태로 표출되는 부정적 지역의식은 현재의 지역불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시민의식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도시민의 특성과 유사하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지방주민의 공동체적 연대의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柳佑益, 李政煥¹³⁾은 울산시를 사례로 각각 지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지역의식연구를 하였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두번째 연구에서는 지도층과 청년층을 비교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지역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지역의식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최초의 시도라는 점이 돋보인다.

외국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Ryskiel의 연구가 있다. 그는 폴란드의 Katowice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식의 발전과 변화의 메카니즘을 확인하고, 地域化(regionalisation)와 地域意識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가 오늘날 Katowice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Katowice 지역의 26개 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설문문의 내용은 고향이 어디이며, 이 지역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우며,

8) 문석남, 1988, “지역의식과 지역주의 인식,” 지역발전론, 녹원출판사, pp.167-197.

9) Zbigniew, Rykiel, 1985, “Regional consciousness in the Katowice Region, Poland,” Area, vol. 17(4), pp. 285-293.

10) 문석남, 1988, *op. cit.*, pp.171-173.

11) 최협, 1986, “지역발전과 지역의식,” 자생적 지방발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구미무역 출판부, pp.101-142.

12) 임경수, 1989, “지역불균형과 지역주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창간호, pp.25-38.

이외 地域感情에 대한 대표적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心理學會 編, 1989, 心理學에서 본 地域感情-地域間 固定觀念과 그 解消方案, 성원사.

韓國社會學會 編, 1990, 韓國의 地域主義와 地域葛藤, 성원사.

13) 류우익, 이정환, 1985, “地方都市 指導層의 地域意識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第12號, pp.21-39.

류우익, 이정환, 1988, “地方都市 青年層의 地域意識: 蔚山市의 事例研究,” 地理學論叢, 第15號, pp.1-20.

Silesia에 위치한다고 생각되는 읍의 나열 등이 다.

2) 地域意識의 諸關係

이 논문의 주제인 地域意識은 그림 1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지역 주민의 두뇌속에는 感情的 水準, 行態的 水準, 象徵的 水準 등이 相互作用을 하게 된다. 여기서 感情的 水準은 領域性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領域性이란 유기체가 자기영역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장소에 行態를 연관시켜 지리적 영역의 공간적 요소와 동시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태적 요소를 의미한다.¹⁴⁾ 이러한 영역성은 행태적으로 여러 활동(마을의 모임, 이웃과의 관계등)을 통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며, 환경에 대한 認知過程과도 상호작용을 하여 장소에 대한 愛着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지역에 대한 所屬感을 형성한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통해 參與意識으로 이어진다. 참여의식은 公式的, 非公式的 參與行動으로 표출되고, 이것은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주민집단의 지역의식을 밝히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맥락에서 環境에 대한 評價와 이웃과의 紐帶感, 地域的 所屬感의 순으로 주민의 반응을 살펴보고 지역적 소속감이 참여의식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지역발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밝혀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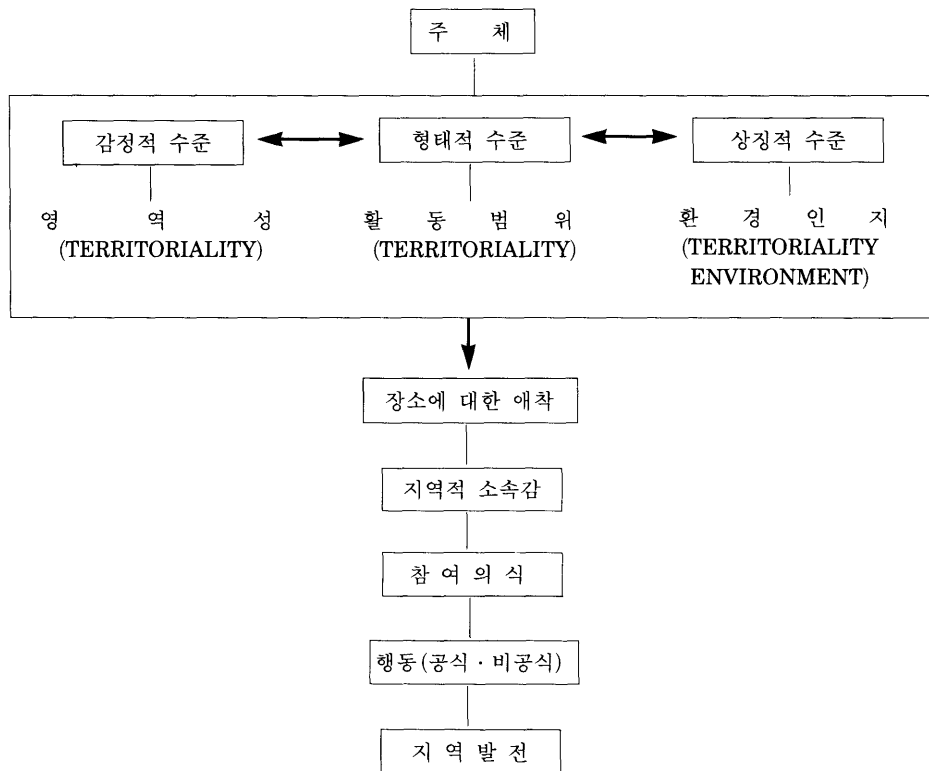


그림 1. 地域意識의 諸關係

14) Proshansky, I. et al., 1970, *Environmental Psychology*, p.193(김수연, 1989, “住宅類型에 따른 住民特性和 近隣活動의 關係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p.21-22에서 재인용).

표 2. 生活環境에 대한 絶對的 評價

단위: 명, %

	아주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지 못한 편이다	아주 좋지 못하다	계
집 단 1	3(3.8)	18(22.5)	43(53.8)	16(20.0)	0	80
집 단 2	2(3.2)	13(21.0)	29(46.8)	16(25.8)	2(3.2)	62
집 단 3	8(7.2)	27(24.3)	51(45.9)	23(20.7)	2(1.8)	111
집 단 4	1(20.0)	26(35.1)	35(47.3)	8(10.8)	2(2.7)	74
기 타	1(20.0)	0	3(60.0)	1(20.0)	0	5
계	17(5.1)	84(25.3)	161(48.5)	64(19.3)	6(1.8)	332

자료: 설문조사.

3. 生活環境에 대한 評價

1) 絶對的 評價

Downs에 의하면 空間知覺에 대한 연구방법은 構造的 接近方法(structural approach), 評價的 接近方法(evaluative approach), 選好的 接近方法(preference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이 절의 絶對적 평가는 評價的 接近方法에 해당 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공간적 image의 평가를 파악하고 평가를 의사결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에 관련시키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이 방법에 내포된 가정은 知覺된 世界(perceived world)가 意思決定을 하는(그 결과 행동으로 나타남) 근본적인 기준 또는 기초들 중의 하나라는 것¹⁵⁾이다. 生活空間의 選好에 관한 絶對的 評價는 環境知覺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空間行動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地域意識의 가장 核心的의 要素라 할 수 있다.¹⁶⁾

絶對的 評價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집단 2를 제외한 집단 1, 3, 4

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앞서고 있다. 한편 집단 1, 2와 집단 3, 4가 각각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직업 보다는 연령이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相對的 評價

生活環境에 대한 相對的 評價는 選好的 接近方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접근방법의 기본문제는 일단의 공간적으로 구분된 평가대상들이 주어진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이들을 특정한 행동목적과 관련하여 선호의 scale상에 산정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¹⁷⁾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mental map에 관한 연구이다.¹⁸⁾

생활환경에 대한 空間的 選好傾向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지역과 相對的 評價를 해 보았다. 비교의 대상으로 충남 서부지역의 인접군과, 大田이나 天安과 같은 市級都市를 선정하였다. 먼저 인접군과의 비교평가를 구한 결과, 전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우

15) Downs, M.R., 1970, "Geographic space perception: past approach and future prospects," *Progress in Geography*, Vol. 2, pp.68-69(이희열, 1978, "Mental Map에 관한 一考察," 地理學論叢, 第5號, pp.67-68에서 재인용).

16) 류우익, 이정환, 1988, *op. cit.*, p. 5.

17) 이희열, 1978, *op. cit.*, p. 68.

18) 이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이희열, 1977, "거주선호의 Mental Map에 관한 연구," 地理學, 第15號, pp.27-56.

이희열, 1978, "Mental Map에 관한 一考察," 地理學論叢, 第5號, pp.66-74.

이몽일, 1982, "Mental Map에 의한 都市環境知覺分析,"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표 3. 地域的 所屬感

단위: 명, %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의식하고 있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의식하지 않고 있는 편이다	타지역 소속감을 갖고 있다	계
집 단 1	37(46.3)	37(46.3)	4(5.0)	2(2.5)	0	80
집 단 2	30(48.4)	23(37.1)	5(8.1)	2(3.2)	2(3.2)	62
집 단 3	60(53.1)	42(37.2)	6(5.3)	3(2.7)	2(1.8)	113
집 단 4	36(48.0)	28(37.3)	9(12.0)	2(2.7)	0	75
기 타	2(40.0)	2(40.0)	0	1(20.0)	0	5
계	165(49.3)	132(39.4)	24(7.2)	10(3.0)	4(1.2)	335

자료: 설문조사.

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1, 2와 집단 3, 4는 각각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집단 3, 4는 집단 1, 2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가 많다. 즉 직업보다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환경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위환경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며, 일단 형성된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中心地階層에서 洪城보다 上位階層에 속하는 大田이나 天安과 비교평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집단에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1과 2는 부정적인 반응이 각각 72.6%와 71%로 집단 3과 4(각각 47.7%와 51.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지역주민의 경우 職業보다는 年齡에 따라 인접시급도시와 비교해서 자신들이 속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인접군과의 비교에서 처럼 여기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실인식에 민감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地域的 所屬感과 定住意思

1) 地域的 所屬感과 結束

地域意識의 기초는 特定地域 또는 地域社會

에 대한 所屬感이다. 지역적 소속감은 자신을 지역에 연대시키는 성향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은 바로 所屬感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⁹⁾

洪城郡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이면서, 공업의 발달에 의한 급격한 인구의 유입보다는 오히려 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地域的 所屬感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귀하는 흥성사람이라는 지역적 소속감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설문 결과 결과를 보면, 전집단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지역적 소속감을 보여주고 있다. 즉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전집단 모두 ‘강하게 가지고 있다’, 내지는 ‘의식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집단별로 거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적어도 사례지역의 경우, 지역적 소속감의 정도는 직업 및 연령의 차이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농업종사자이든 비농업종사자이든, 혹은 연령이 높은 낮은 거의 대다수 설문응답자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지역사회의 결속과 통합은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교류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것은 주민이 갖는 가치와 규범이 얼마나 공통성을 갖는가, 나아가서 그들의 生活樣式이 어떤 공통의 기반 위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귀하가 소속한 마을의 이웃과의 유대감은

19) 류우익, 이정환, 1988, *op.cit.*, p. 10.

표 4. 이웃과의 유대감

단위: 명, %

	매우 강하게 느낀다	느끼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못한다	계
집 단 1	26(32.9)	38(48.1)	13(16.5)	2(2.5)	0	79
집 단 2	16(25.8)	23(37.1)	17(27.4)	6(3.7)	0	62
집 단 3	47(42.0)	49(43.8)	14(12.5)	1(0.9)	1(0.9)	112
집 단 4	23(30.7)	34(45.3)	12(16.0)	5(6.7)	1(1.3)	75
기 타	2(40.0)	1(20.0)	2(40.0)	0	0	5
계	114(34.2)	145(43.5)	58(17.4)	14(4.2)	2(0.6)	333

자료: 설문조사.

어떠합니까?’ 라고 설문한 결과, 전집단에서 이웃과의 紐帶感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보면, 집단 1과 3은 ‘매우 강하게 느낀다’, ‘느끼는 편이다’에 대한 반응이 80% 이상이고, 집단 4는 76%, 집단 2는 가장 낮은 63%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 1과 3이 비농업에 종사하는 집단 2와 4 보다는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보다 共同體意識이 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농업종사자는 농업의 성격상 協同을 요하는 작업이 많고, 따라서 이웃과의 紐帶感은 당연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과의 紐帶感을 홍성출신과 外地人을 비교하여 보면, 홍성출신 응답자는 집단 1, 3, 4가 각각 80.6%, 85.7%, 84.8%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2는 타집단에 비하여 떨어지는 71.8%를 기록하였다. 외지인의 경우를 보면, 집단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 1, 2, 3, 4 각각 85.7%, 47.8%, 84.7%, 62.0%를 기록하고 있는데, 농업종사자인 집단 1, 3은 이웃과의 紐帶感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홍성출신자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비농업종사자의 경우(집단 2, 4)는 농업종사자에 비해 이웃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고, 또한 홍성출신자의 같은 집단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洪城以外地域 출신자들은 직업에 따라 이웃과의 紐帶

感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홍성이 외지역 출신자로서 비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웃과의 紐帶感과 地域的 所屬感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집단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집단 1에서는 지역적 소속감이 강한 응답자 중에서 ‘이웃과의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와 ‘매우 강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5.9%와 35.1%이고, 지역적 소속감을 의식하고 있는 응답자에 있어서는 각각 25.0%와 69.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집단 1에서는 地域的 所屬感과 이웃과의 紐帶感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 2에서도 地域的 所屬感이 강한 응답자 중에서 ‘이웃과의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와 ‘매우 강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3.3%와 40.0%이고, 地域的 所屬感을 의식하고 있는 응답자에서는 각각 43.5%와 17.4%로 조사되어 집단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적 소속감과 이웃과의 유대감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 3에서 지역적 소속감이 강한 응답자 중에서 ‘이웃과의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례와 ‘매우 강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각각 32.2%와 55.9%이고 지역적 소속감을 의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각각 61.

20) 류우익, 이정환, 1988, *op. cit.*, p. 11.

9%와 21.4%로 나타나 집단 1, 2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집단 4에서도 그 관련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적 소속감이 강한 응답자가 이웃과의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94.5%이고, 지역적 소속감을 의식하고 있는 응답자에서는 67.8%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집단에서 地域的 所屬感과 이웃과의 紐帶感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집단 1, 3은 집단 2, 4에 비하여 그 관련 정도가 높아서 비농업종사자보다는 농업종사자가 지역적 소속감과 이웃과의 유대감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定住意思

地域意識의 최종적 형태는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 것인가, 즉 정주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은 地域的 所屬感이나 環境知覺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²¹⁾ 인간의 存在基本機能(Daseinsgrundfunktionen) 중의 하나인 住居活動은 일단 한곳에 자리를 잡으면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의 生活環境과 地域的 所屬感은 定住意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귀하는 앞으로도 흥성에 거주할 계획입니까?’라는 설문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정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집단 1, 3, 4에서 모두 90% 이상의 높은 정주의사를 가지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령이 낮은 비농업종사자로 구성된 집단 2는 타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주의사(75.4%)를 보이고 있다. 집단 2에는 근무지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공무원, 교사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定住意思와 地域的 所屬感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적 소속감이 강할수록 정주의사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집단 1의 경우에, ‘지역적 소속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의식

하고 있는 편이다’에 응답한 설문자가 정주의사를 보인 비율이 각각 94.6%, 91.9%로 나타나 정주의사와 지역적 소속감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집단 2의 경우에도 역시 지역적 소속감을 가진 응답자가 정주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한 지역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의식하고 있는 편이다’에 응답자가 정주의사를 밝힌 비율이 집단 1 보다는 떨어지지만 89.7%와 69.6%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설문자가 80%의 정주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 소속감을 의식하지 않고 있거나, 타지역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전혀 정주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 3의 경우에는 지역적 소속감과 정주의사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즉 지역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자가 정주의사를 보인 비율은 각각 98.3%, 92.9%를 보이고 있다.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설문자는 83.3%, ‘의식하지 않고 있는 편이다’, ‘타지역 소속감을 갖고 있다’가 각각 100%를 보이고 있어서 지역적 소속감과 관계없이 높은 정주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연령도 높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집단 4의 경우에는 지역적 소속감을 가진 응답자가 정주의사를 보인 비율은 100%, 89.3%이고, 지역적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설문자도 정주의사는 100%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집단 1과 2는 地域的 所屬感과 定住意思와의 相互關聯性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집단 3과 4는 타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 정착하기에는 연령상의 제약 때문에 지역적 소속감과 별개로 정주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5. 參與意識과 行動

1) 參與에 대한 意識

지역개발에서 住民參與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적인 형태와 기능에서부터 극히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

21) 류우익, 이정환, 1988, *op. cit.*, p. 12.

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住民參與의 개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地域社會의 一般 住民이 公的으로 決定權이 부여된 行政機關이나 官僚들에게 政策 또는 計劃의 形成, 決定 및 執行過程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여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²²⁾

‘주민이 지역정책의 수립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서 참여의 수준이 각각 다른 몇가지 參與方式 중,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형식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집단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층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참여의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비농업 종사자의 참여의식이 농업종사자의 그것에 비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책의 수립이나 시행과정에서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地方自治制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홍성군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설문의 결과를 보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는 집단 1, 2, 3, 4 각각 60.1%, 45.2%, 61.6%, 67.1%로서 집단 2를 제외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2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2의 이러한 반응은 바로

정치적 무관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타집단에 비하여 이것이 강하게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집단 2에서는 ‘주민이 지역정책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은 높지만, 정작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한 상반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은 參與와 規制 및 支援이라는 방법을 통해 보다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는 住民自治를 이룩하는데 건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2) 地域(住民)運動

地域(住民)運動은 地域의 共通性和 地域住民의 生活上의 利害와 要求(地域的 要求)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벌여 나가는 운동을 의미한다.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지역 내에서 생활 근거지를 갖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으로서의 일상생활상의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大衆運動”²³⁾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의식이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갖게 되면, 하나의 集合行動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하게 되며 이는 地域(住民)運動으로 이어진다.²⁴⁾

실제로 홍성군 주민들의 住民運動²⁵⁾에의 參與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住民運動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 1과 3에서는 보통 정도의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집단 2와 4에서는 소극적 참여와 전혀 참여하

22) 李圭煥, 1990, “地域開發과 住民參與,” 地方自治研究, Vol. 2(1), pp. 31-33.

23) 정근식, 1991, “住民運動의 構造와 力學에 關한 比較研究—1980年代 全南地域 開發事例를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 33.

24) 김성국, 1988, “지역주의의 전개와 지역운동론 모색,” 사회운동과 사회계급, 전예원, p. 210.

25) 주민운동에 대한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洪城郡에 일어났던 주민운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설문을 행한 결과 주민 146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102명이 1가지 응답하였고, 44명이 2가지 응답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농민회운동(26.3%), 우루과이라운드 반대운동(18.9%), 洪州地名回復運動(12.1%), 안면도사태(7.4%), 간척지 피해보상요구(6.8%), 전교조운동(4.7%), 도청유치운동(3.2%), 기타(20.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민운동이 아직은 생활상의 요구, 경제적 요구에는 민감하지만 여전히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운동으로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이한 점은 洪州地名回復運動에 비교적 높은 참여를 보여주지만, 이에 못지않게 結城面을 중심으로 洪州地名回復反對運動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지 많음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직업에 따라서 주민운동에 참여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업종사자보다는 비농업종사자가 住民運動의 參與에 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업종사자들은 직접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가령, 농산물 개방압력, 추곡수매가 인상, 간척지 피해보상 등)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 비하여 비농업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이슈들이 적었다는 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홍성군 주민이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때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90년도에 홍성군에 인접한 안면도에서 일어난 核廢棄物埋立場 建設反對運動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시설을 홍성군에 설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²⁶⁾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1과 3, 집단 2와 4가 각각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직업에 따른 대응양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농업종사자보다 농업종사자가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핵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은 농업종사자의 생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홍성주민들의 반응은 지금까지의 주민운동 참여에 비해 훨씬 높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며, 또한 높은 참여의사의 다른 측면에서는 地域利己主義의 한 형태인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일방화, 획일화, 거대화, 집중화, 독점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대중매체의 이러한 속성들은 자연히 수용자의 의사나 견해보다는 일부 소수의 권력자나 기업가의 입김을 반영할 수 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언론의 일방성을 극복하고 중앙집중적인 획일화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을 기초로 한 소규모 언론발간이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기를 전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²⁷⁾ 이러한 地域新聞은 다방면에 걸친 地域情報를 제공하고 住民意識을 결속시키며, 토론을 통한 民主的 力量을 培養함으로써 地域發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²⁸⁾ 생각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단위 지역신문인 <주간홍성>이 얼마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아직 그 영향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비율은 집단 1, 2와 집단 3, 4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집단 1, 2 보다는 집단 3, 4가 아직 영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직업 보다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地域發展에 공헌하고 있다'는 비율로 비교해 보더라도 집단 2와 집단 4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홍성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집단 1, 2에서는 '필요하나 현재의 활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 3, 4에서는 '무슨일을 하는지 이 단체의 성격을 모르겠다'와 아예 '필요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집단 1, 2에서는 여러 단체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한 단체들이 현재와 같은 활동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집단 3, 4에서는 아예 이 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26) 이 설문은 주민운동의 유형으로 보자면 抵抗型 住民運動의 한 예로서, 기대되는 개발이익이 매우 적거나 생활환경의 파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근식, 1991, *op. cit.*, p. 43.

27) 김기태, 1990, "주민운동과 지역언론 운동," 숭실대학교 기독교 사회연구소 편, 도시.주민.지역운동, 한울, pp. 35-36.

28) 朴英漢, 1985, "文化和 地域主義," 韓國社會科學研究會(編), 地方的 再發見, 民晉社, p. 226.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화되는 점 외에도, 위의 단체들이 농민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보다는 선언적인 차원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住民運動 參與度와 홍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1에서는 주민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참여자는 '군민의 權益과 意識高揚을 위해 홍성군의 민간단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자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활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2.9%, '군민의 권익과 의식 고양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8.6%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서 집단 1은 주민운동참여도와 민간단체에 대한 의식 사이에 비교적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집단 2에서는 주민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참여자는 홍성군의 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하나 현재의 활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가 40.0%이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20.0%를 기록하고 있다. 주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자는 '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하나 현재의 활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가 50.0%였고, 그 다음은 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집단 3에서는 주민운동에 매우 적극적이거나 다소 적극적인 참여자는 각각 '필요하나 현재의 활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66.7%)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단체의 성격을 모르겠다' (50.0%)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집단 4에서는 주민운동의 매우 적극적 참여자는 '군민의 권익과 의식고양을 위해 꼭 필요하다'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단체의 성격을 모르겠다'의 상반된 입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적극적 참여자는 '필요하나 현재의 활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가 54.5%, 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집단 1에서는 주민운동에 적극적 참여자와 민간단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집단 2, 3, 4

에서는 주민운동에 대한 참여도와는 관계없이 현재의 활동방식을 개선하거나 아예 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地域發展에 대한 意識

1) 役割에 대한 意識

오늘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은 主體와 對象의 兩面性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올바른 위치정립과 역할수행은 지방자치, 지역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귀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능동적인 태도보다는 수동적인 태도가 지배적이다. 즉 설문의 항목에서 능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선구적, 지도적 역할', '적극적인 지원'이 '이해와 협력', '군민으로서 책임완수' 등의 수동적인 태도보다 앞서고 있다. 집단별로 보면 집단 1의 경우, 능동적인 태도가 전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17.6%에 불과하며 수동적인 태도가 7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2의 경우는 전집단 중에서 능동적인 태도가 가장 높은 32.2%로 나타났고, 수동적인 태도는 가장 낮은 수준인 66.1%를 보이고 있다. 집단 2의 응답자는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같은 연령대의 집단 1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 3과 4를 살펴보면, 집단 1과 2 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능동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태도의 비율은 집단 3의 경우에 25.6% : 72.6%, 집단 4의 경우에는 28.69.4%로 나타나서 고령층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집단 2와 4가 이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선도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집단 2의 역할인식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지역개발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당위적인 질문에 모든 집단이 '모든 주민이 고루안다'라는 응답에 각각 80.0%, 79.0%, 63.2%,

77.3%를 보이고 있다. 집단 1, 2, 4는 지역 개발정책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고루 알아야 한다'는 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단 3에서는 '주민이 고루 알아야 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타집단보다 낮고, '주민의 대표가 알아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18.4%를 보이고 있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역할인식에서 집단 1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집단 1은 앞에서 보여주었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原論的인 면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2) 葛藤에 대한 認識

지역사회의 葛藤要因들이 많거나 첨예화할수록 주민의 화합에 균열이 생기고 지역사회정책결정과 발전프로그램이 지연되기 쉽다. 도시화와 근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지역공동체의 전통적 규범과 질서가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갈등요인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²⁹⁾

여기서는 홍성군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선택하여 이것들이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로 장애가 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먼저 教育水準의 차이가 얼마나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집단에서나 크게 혹은 다소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의 차이가 주민자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원인은 집단 3과 4는 교육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준의 차이가 큰 장애물로 생각되지 않지만, 집단 1과 2는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한 생활상의 각종 차별을 집단 3과 4보다는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은 所得水準의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의 차이보다 장애가 된다고 느끼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로 보면, 집단간의 명확한 차별성이나 경향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소득 수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느 계층이나 소득 격차의 완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世代間的 葛藤이 주민자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얼마나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 '장애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 다른 요인보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농업과 비농업 종사자간에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협동을 통한 작업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대간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비농업종사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洪城郡의 發展展望과 發展方向

홍성군의 發展展望은 어느 집단에서나 낙관적인 태도가 우세하고 있다. 집단별로 낙관적인 태도와 비관적인 태도를 대비시켜 보면, 집단간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홍성군 주민은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낙관적인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홍성군의 生活環境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미래 홍성군의 발전전망을 낙관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홍성군이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地域政策에 대한 參與意思가 전제된다면, 주민은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질 것이다. 지역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지향하는 空間想이 구현되었을 때에 살게 될 주민의 행태에도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미래 지향적 이념상(Leitbilder)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³⁰⁾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설문방법은 미리 제시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상위 2개 항목을 채

29) 김경동, 안정시, 1985, 韓國의 地方自治와 地域社會發展, 서울大學校 出版部, p. 266.

30) 류우익, 이정환, 1988, *op.cit.*, p. 16.

택,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주민편익개선을 위한 郡內 基盤 施設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집단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정책의 방향은 전집단에서 보다 많은 행정기관을 유치하여 홍성군을 行政中心都市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홍성에는 충남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크고 작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입지하고 있어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忠南道廳을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높은 열망이 있다. 세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집단 1, 2, 3에서는 인근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 交通, 通信, 公共 서비스施設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앞의 주민생활편익시설의 확대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역의 참모습은 도시와 비교하여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7.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洪城郡을 사례로하여 生活環境에 대한 평가, 地域的 所屬感과 定住意思, 參與意識과 行動, 地域發展에 대한 意識에 대한 설문을 통해 農村住民集團이 가지고 있는 地域意識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地域意識의 경험적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집단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集團 1(청장년층으로서 농업에 종사): 먼저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의 경우, 절대적 평가와 인접군과의 비교한 상대적 평가에서 '보통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 소속감과 이웃과의 유대감 및 정주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정책에의 참여의사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높았다. 주민운동에 대한 참여도에 있어서는 보통정도였으나, 가상적인 상황 발생시 대응은 타집단에 비하여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간 홍성>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인식에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였지만 지역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모든 주민이 고루 알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갈등인식에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세대간의 갈등이 모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의 발전전망을 다소 낙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방향은 주민 편익시설 확대에 나타났었다.

集團 2(청.장년층으로서 비농업에 종사):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 모두, 집단 1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소속감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웃과의 유대감과 정주의사는 타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근무지변경이 잦은 직업을 가진 응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의 형식은 집단 1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참여의사를 보여주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전망에서는 전집단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운동에의 참여도에 있어서는 소극적 참여가 훨씬 우세하지만 적극적 참여의 비율은 전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간 홍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나 영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았지만, '지역발전에 공헌한 바 크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인식은 집단 1과 마찬가지로었지만 능동적 역할에 대한 비율은 집단 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등에 대한 인식과, 홍성군의 발전 전망도 집단 1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集團 3(장.노년층으로서 농업에 종사):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는 집단 1, 2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 소속감과 이웃과의 유대감, 정주의사는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참여형식 역시 직.간접적인 참여를 원하지만 집단 1, 2에 비하여 그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운동에 대한 참여도는 보통정도였고,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집단 1과 비슷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간 흥성>에 대해서는 역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은 영향력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집단 1, 2에 비하여 훨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역할인식에 있어서 타집단과 동일하게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선구적, 지도적 역할이 전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갈등인식과 발전 전망에 있어서는 집단 1, 2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集團 4(장·노년층으로서 비농업에 종사):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는 타집단과 별 차이 없이 대체로 보통이다가 우세하며, 시급도시와의 비교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 소속감은 집단 2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웃과의 유대감과 정주의사는 집단 3 보다 못하지만 집단 2 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의 형식에는 역시 직, 간접적으로 참여를 바라고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전망은 전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운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간 흥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전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고,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는 이들 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 인식에서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갈등인식에서는 다소 장애가 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홍성군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타집단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의 집단별 분석의 결과에서 본 것처럼 아직 홍성군 주민집단들은 지역의식에 있어서, 비록 일부 조사항목에서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설문 응답자가 홍성군 주민을 대표한다고 보았을 때 홍성군 주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식을 일반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평가에서는 중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절대적 평가와 타지역과 비교한 상대적 평가의 내용이 연령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지역적 소속감과 이웃과의 유대감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집단간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직업집단간에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정주의사도 매우 높지만 청, 장년층 중 비농업종사자는 다소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참여의 의식에 대한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과 연령에 따라 그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주민운동 참여도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주민의 대응은 직업에 따른 차이를, 민간단체에 대한 반응은 주로 연령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4.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인식과 지역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았고, 직업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 교육수준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세대간의 갈등은 직업에 따라, 그리고 소득수준의 차이와 발전 전망과 발전의 방향에는 직업 및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정책은 주민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집단구분을 하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블랙박스(black box)일 수밖에 없는 주민의 지역의식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집단구분에 의한 연구와 한 지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Residential Groups and Regional Consciousness of Rural Areas: A Case Study of Hongsŏng-gun

Summary

Sangbin Kim*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various aspects of regional consciousnes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discipline of geography. And this study specifically aims:

first, to approach the entity of consciousness by residents which forms the underlying background of regionalism,

second, to investigate the desirable image of the region and the ideal feature on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reflect the demand of residents for participation in regional policies,

third, to identify the residents' recognition of regional movement, its feasibility into active participation, and the influence by groups leading the movement on residents. This is on the premise that in case the regional consciousness is consolidated and activated, community organizations are put forth as a token for positive measure and active regional movements are concurrently initiated.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is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where respondents a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y age and occupation variables and regional consciousness of each group is analyzed. The study region is the whole administrative area of Hongsŏng-gun. Assuming that the residents are well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s of Hongsŏng-gun, generalization of the regional consciousness analyzed is summed up as follows.

1. The residents evaluate the living condition as moderate and indicate a difference among age groups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evalu-

ations.

2. Their sense of identity and ties with neighbors are quite high and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although not such noticeable, among occupational groups. And their willingness to settle down in the community is very high but non-agricultural workers from age groups of 20-49 showed rather an uncertain attitude.

3.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is considerably high, and obvious is the difference among groups in accordance with age and occupation. Participation in resident movements and reaction to imaginary situations are varied according to occupation while their reaction to private organizations differs according to age.

4. Their recognition of the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of regional policies are high enough and a difference is found among occupational as well as age groups. In the understanding of conflicts, age in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in the conflict among generations, and occupational age in income level, prospect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are respectively responsible for the difference among residential groups. Forthcoming regional policies should be led in the direction to expand residential facilities.

Keywords: regional consciousness, territoriality, residential groups, sense of identity, willingness to settle down.

Journal of Geography 20, August 1992, pp.31-46.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